

보도시점 (온라인) 2026. 5. 19.(화) 12:00  
(지면) 2026. 5. 20.(수) 조간

## 글로벌 전문가와 함께 하는 지역사회 방재, 주민 안전을 넘어 지속가능한 회복력으로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21회 UN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연례회의 개최(5.19.~22.)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5월 19일(화)부터 22일(금)까지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21회 UN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연례회의’를 개최한다.

‘UN 태풍위원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 주도로 설립한 국제기구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방재분과 의장국으로서 연례회의를 개최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방재 전략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역사회 중심 방재: 주민대피 역량강화와 지속가능한 회복력 구축’을 주제로, 국제기구 관계자와 국내·외 재난안전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마루이치 다이수케(Maruichi Daisuke, UNESCAP), 유 준(Yu Jun, WMO), 알폰조 산타마리아 네스토르(Alfonzo Santamaria Nestor, OECD) 등 글로벌 전문가들이 기조강연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의 주민 대피체계와, 재난 이후 더욱 안전하게 지역사회를 재건하는 ‘지속가능한 회복력’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글로벌 방재 전략이 이론을 넘어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 분야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기획과	책임자	과 장	안채명 (052-928-8050)
		담당자	연구관	이치현 (052-928-8085)

